

보도시점 2025. 9. 3.(수) 10:30 / 배포 2025. 9. 3.(수) 08:30

변화의 시대, 전 세계 경쟁법 전문가들과 경쟁질서의 방향을 모색

- 공정위,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
- 제2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한-말레이시아 경쟁당국 간 양해각서 체결식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통해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 -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25. 9. 3. (수) 09:30-17:40, 서울 신라호텔
- **주요 참석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프랑스 경쟁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위원회, 캐나다 경쟁청, 독일 연방카르텔청,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중국 시장총국, OECD경쟁위원회 등
- **논의 주제:** ① 경쟁 관련 환경 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
② 데이터와 경쟁 및 소비자 쟁점
③ 디지털에서의 세부 쟁점: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3일(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이하 ‘서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3회 서울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에서 참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아젠다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특히,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관련하여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대표적 디지털 분야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The-Top, 이하 OTT) 시장을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성장과 혁신에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가 마주한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를 설명하며, “시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전 세계 경쟁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서울포럼이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해법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브누아 코레(Benoît Cœuré) 프랑스 경쟁청장 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누구나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창제된 ‘한글’처럼, 국제 경쟁 공동체의 역할도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하며, 각국의 경쟁당국 수장 등이 참석한 이번 서울포럼은 국제 경쟁 공동체에서의 고위급 대화를 심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경쟁당국 및 학계 인사가 참여해 ① 경쟁 관련 환경 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 ② 데이터와 경쟁 및 소비자 쟁점, ③ 전자상거래, OTT와 경쟁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앤드류 퍼거슨(Andrew Ferguson) 위원장, 프랑스 브누아 쿠틀레 경쟁청장,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에이지 차타니(Eiji Chatani) 위원장, 캐나다 경쟁청 진 프랫(Jeanne Pratt) 부청장, 그리고 한국 공정위 김정기 상임위원 등 총 5명의 경쟁당국 수장 및 고위급 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경쟁당국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도전 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통찰과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2세션부터는 데이터, 전자상거래, OTT 등 디지털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먼저, 제2세션에서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과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창출 및 개선에 필수 요소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부각 됨에 따라, 데이터와 관련한 경쟁·소비자 보호 이슈가 논의될 계획이며, 해당 세션에는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토마시 흐루스트니(Tomasz Chróstny) 청장, 독일 연방카르텔청 이레네 세프치크(Irene Sewczyk) 국장,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케이트 리더(Kate Reader) 국장, OECD 경쟁분과 오리 슈왈츠(Ori Schwartz) 분과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케서린 켐프(Katharine Kemp) 교수 및 한국 성신여자대학교 황태희 교수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전통 산업과는 다른, 전자상거래 및 OTT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 제한 행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3세션 연사로써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파하드 알샤트리(Fahad Alshathri) CEO,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위원회 도리스 체페(Doris Tshepe) 위원장(온라인 참석),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이 키아 응(Ee Kia Ng) 부처장,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핀지에 후(Pinjie Hu) 부국장, 홍콩대학교 토마스 청(Thomas Cheng) 교수 및 영국 리즈대학교 피나르 아크만(Pinar Akman)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서울포럼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경쟁정책상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3회 서울포럼 연계 행사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을 계기로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한-폴란드 경쟁정책협의회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경쟁당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식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 제2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

먼저, 9월 3일(수) 오후에 한기정 위원장과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이하 에이지 차타니 위원장)이 참여하는 ‘제2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 에이지 차타니 위원장은 '25.5월부터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고 있음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양 경쟁당국의 발전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하여 온 위원장급 회의이다. 작년 11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주관으로 도쿄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올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한기정 위원장과 에이지 차타니 위원장은 이번 제2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 분야 시장연구, 법·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측은 생성형 AI 등에 대한 시장조사와 디지털 분석인력 확충 방안을 소개하고, 한국 측은 지난 12월 발간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및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분야 시장연구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일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와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경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법 집행 경험 및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유사한 과제에 직면한 양 경쟁당국이 우호관계를 다지고 상호 발전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양자협의회 개최 >

또한, 공정위는 서울포럼을 전후하여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및 캐나다 경쟁청과의 양자협의회를 각각 개최하여,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한-말레이시아 및 한-에콰도르 경쟁당국 간 양해각서 체결식 >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위원장: 이드루스 하룬, Idrus Harun) 및 에콰도르 경쟁감독청(청장: 한스 에믹, Hans Emig)과 각각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한국 공정위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기 두 건의 양해각서는 경쟁당국 간 인력 교류, 정보 교환, 담당지정 등 구체적인 협력 수단을 명시함으로써 협력관계의 지속적 유지, 양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사건에서의 공동 대응 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제13회 서울포럼 및 다양한 연계 행사들은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주요 일정

<붙임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양충식 (044-200-4315)
		담당자	사무관	윤지수 (044-200-4326)
			사무관	박효인 (044-200-4320)
			사무관	신가주 (044-200-4319)
			사무관	장미선 (044-200-4316)
			사무관	강소영 (044-200-4324)

시간	프로그램	
08:30-09:30	참석자 등록	
<개회식>		
09:30-10:00	개회사	한기정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빈축사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외빈축사	Benoît Coeuré [프랑스 경쟁청장 겸 OECD 경쟁위원회 의장]
<제1세션> “경쟁 관련 환경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		
10:00-11:30	사회자	Benoît Coeuré [프랑스 경쟁청장 겸 OECD 경쟁위원회 의장]
	연사	Andrew Ferguso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Eiji Chatani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Jeanne Pratt [캐나다 경쟁청 부청장] 김정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11:30-14:00	오찬	
<제2세션> “데이터와 경쟁 및 소비자 쟁점”		
14:00-15:30	사회자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연사	Tomasz Chróstny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청장] Irene Sewczyk [독일 연방카르텔청 국장] Kate Reader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국장] Ori Schwartz [OECD 경쟁분과장] Katharine Kemp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교수]
15:30-16:00	커피 브레이크	
<제3세션> “디지털에서의 세부 쟁점: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16:00-17:30	사회자	Thomas Cheng [홍콩대학교 교수]
	연사	Fahad Alshathri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CEO] Doris Tshepe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위원회 위원장(온라인)] Ee Kia Ng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부처장] Pinjie Hu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 Pinar Akman [영국 리즈대학교 교수]
<폐회식>		
17:30-17:40	폐회사	한기정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인사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2025년도 가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쟁법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윤한홍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장님과
브누아 쿵레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을 위해 멀리서 직접 와주신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장님,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장님,
토마시 흐루스트니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장님,
파하드 알샤트리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청 최고경영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개최된 한·아세안·CIS 경쟁당국 협의회에 이어
오늘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주신,

빌군 볼드바아타르 몽골 반독점기관장님,
탄 스리 다토 스리 이드루스 하룬 말레이시아 경쟁위원장님,
엘누르 바히로프 아제르바이젠 반독점·소비자시장 관리청장님과

한국과 에콰도르 경쟁당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방한해 주신
한스 에믹 경쟁감독청장님께도 진심으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방글라데시,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참석해 주신
각국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분들과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국내외 학자, 법조인, 언론인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제1세션 논의 주제 소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그 외의 정책적 환경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들은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침반을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경쟁당국의 변화 노력은 늘 존재해 왔으나,
오늘의 현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쟁당국 역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장(Growth)과 혁신(Innovation)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쟁력(Competitiveness) 향상과 관련하여
작년 9월에 발표된 ‘드라기(Draghi) 보고서’는
경쟁법 집행이 생산성과 혁신,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경쟁 커뮤니티에서는
성장과 혁신을 위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조화,
경쟁주창 노력의 중요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들의 협상력 강화, 피해구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시장의 성숙과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경쟁당국의 준비들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도구를 도입하기도 하며,
빠르고 역동적인 디지털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도 존재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보편화가 가져올 경쟁법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 경쟁당국 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연구와 논의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쟁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들도 있는데,
기후 위기 대응이나 노동 분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 및 도전과 관련하여
주요 경쟁당국의 통찰과 그 대응 방안을 듣고자
제1세션의 주제를
‘경쟁 관련 환경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3. 제2세션 논의 주제 소개

오전에 진행되는 1세션에서
경쟁 분야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방향성을 살펴본다면,

오후에 이어지는 세션들에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제2세션에서는
‘데이터에 관한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는
오늘날 기업 간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소비자에 대한 개인화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고,
공급망 최적화나 수요 예측을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는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경쟁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데이터 규모 확대와 네트워크 효과의 결합은
서비스 품질을 높이나, 경쟁 기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나, 이들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한편, 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경쟁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당국과 정보보호당국의 협력 역시
중요한 정책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혁신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2세션을 통해
데이터 독점과 관련 불공정행위,
경쟁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간 접점 등의 이슈들을 짚어보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 제3세션 논의 주제 소개

제3세션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특히 이커머스와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및 OTT 시장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두 시장의 성장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와 혜택을 주었으며,
전후방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선점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 고착화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불공정행위와 같은
경쟁법상 우려도 지속되고 있으며,
다크패턴, 끼워팔기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공정위는 이들 시장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에는 ‘이커머스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올해에는 ‘구독경제’ 시장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해외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및 OTT 시장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생각해 보고,
두 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마무리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각 세션의 사회와 토론을
말아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국제경쟁포럼이
글로벌 경쟁 커뮤니티와 경쟁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